

## 렌즈에 담은 풍경, 홈페이지에 담은 소박한 감동

무 더운 여름, 기쁨은 카메라 하나 들쳐 메고 자연을 벗 삼아 어디론가 훌연히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한번 짚은 해보았을 것이다. 일상에서 보는 모든 풍경들이 자연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기쁨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발견하는 아름다운 일상 속 모습들은 우리에게 작은 감동을 준다.

의료정보솔루션 전문업체 '비트컴퓨터' 병원사업부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정진원 대리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작은 감동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약 2년 전 우연히 만지게 된 디지털 카메라에 매료되어 취미로 시작하게 된 사진 찍기. 그의 홈페이지는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박한 의도에서 탄생되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특이하다거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홈페이지에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정감어린 풍경들이 가득하다.

“제 홈페이지, 자랑할게 뭐 있나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평범한 겁니다. 제 기분을 알리거나, 재미있는 글이나 사진을 보면 가져와서 올리기도 하고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일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남들과 교감하는 거죠.”

그는 주로 풍경사진을 찍는다. 풍경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고, 시간이 없다고 그를 재촉하거나 아무리 오래 포즈를 요구해도 힘들어하지 않는단다. 그것이 바로 풍경사진의 매력이라고. 그는 멋진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 출퇴근 시간도 기꺼이 할애한다. 같은 장소에서 계절별로 찍는 사진, 작년에 피었던 꽃을 올해도 찍는 식의 사진 등, 끊어진 듯하면서 연결이 되는 듯한 주제의 사진을 좋아한다. 요즘에는 인물사진에도 관심이 생겨 스튜디오에서 좀 더 사진기술을 배워볼 계획도 있다고.

정대리의 홈페이지에는 입이 썩 벌어질 만큼 멋진 사진들도 즐비하다. 회사 사진동호회에서 함께 활동 중인 동료들의 사진도 함께 올려져 있기 때문. 하얀 여백의 홈페이지 안에서 펼쳐지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을 보면 군침이 나고, 일상에서 찍은 재미있는 사진들은 잠시 미소를 머금게 한다.

BOARD로 명명된 글쓰기 게시판에는 그가 쓰는 일기와 재미있는 자

료를, 그리고 그의 좋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남긴 방명록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글들도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이다. “사진은 틀에 박힌 일상을 벗어나 저의 또 다른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아가고 이해해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홈페이지는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아직 제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작은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진이 더 많아지면 홈페이지를 리뉴얼 할 계획이라는 정진원 대리. 소박한 그의 바람만큼이나 그의 홈페이지에서는 기분 좋은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그의 손끝과 카메라의 렌즈가 만들어낸 소박하고 멋진 작은 감동들이 영원히 가득할 것이다.

